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김규랑¹, 이형실^{2*}

¹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학생, ²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of Marital Conflict and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Kyu-Rang Kim¹, Hyong-Sil Lee^{2*}

¹Student,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만 4, 5세의 유아 177명과 그 어머니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유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과 유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은 유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부부갈등, 우울, 문제행동, 과잉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s of marital conflict and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Data was collected from 177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hers'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Mothers' marital conflict were also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hyperactivity, anxious and aggressive behaviors. Mother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hyperactivity, anxious and aggressive behaviors.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arital conflict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depression. Mothers' depression also significantly affected young children's hyperactivity, anxious and aggressive behavior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as fully mediated by mothers' depression.

Key Words : Marital conflict, Depression, Problem behaviors, Hyperactivity, Anxious behaviors, Aggressive behaviors

1. 서론

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신체, 인지, 사회, 정서적 측면의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

이 중요하다. 이 시기의 발달은 유아가 접하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지속적인 부부갈등 경험과 분노,

*Corresponding Author : Hyong-Sil Lee (hslee97@hotmail.com)

Received October 23,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November 12,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문제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최근 유아의 문제행동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발견되는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이어져 이후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발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부터 정상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도와 종류까지 아주 다양하다. 유아기 자녀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하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부적응을 나타낸다[1]. 유아기의 부적응과 같은 문제는 아동기에 이르면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수반하기도 하고[2],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우울과 비행 및 범죄, 자살, 약물남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전 생애 발달 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적응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발달 초기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부모의 갈등적 부부관계[3], 어머니의 우울이[4]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요인 중에서 심리 환경적 요인인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에 초점을 두었다.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6]. 부부갈등은 부모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악화되므로 유아의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부부갈등은 가족 내 긴장감과 혼란을 일으키고, 파괴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가족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유아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과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7].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유아의 경우 스트레스 정도 수준이 높고, 자아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불안수준과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부부갈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유아는 정서적 불안과 문제

행동을 나타내며, 이혼과 별거의 가정보다 공격성, 과잉행동, 불안, 우울과 같은 발달과정 상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10]. 또한 부부갈등이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며 그 빈도가 높고 미해결된 갈등이 오래 지속될수록 유아의 심리적 적응과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1]. 더구나 유아기 자녀가 접하는 부모 간 갈등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부모가 유아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지지나 돌봄을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5]. 부부갈등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 및 관계, 정서 발달, 행동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12], 심리적 문제 및 문제행동 같은 적응 문제를 유발한다[13].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의 정서적 불안과 행동문제를 증가시킨다.

부부갈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우울도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다. 관련연구들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며, 특히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4]. 부모의 심리적 건강은 부모 자신의 성격과 발달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역할 및 양육태도,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며, 또한 자녀에게 전이되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인 우울을 중시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우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에게 직·간접적 형태로 반영되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5]. 유아와 같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불안, 위축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더불어 공격성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대화시킨다[16]. 우울한 어머니가 양육하는 자녀는 주의력결핍과 공격성 문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17]. 어머니의 우울성향은 자녀에게 불안, 위축, 수동성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초래하고, 행동적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야기한다[15]. 중단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나, 생후 18개월에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7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18]. 이 밖에도, 임상집단과 일반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정서 및 인지 발달과 관련되며[19],

우울을 느끼는 어머니와의 일상생활 경험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반영되어 유아의 스트레스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백종화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우울 수준이 낮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외현화행동과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20]. 다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은 유아의 미성숙 행동, 위축, 주의력 결핍,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강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고, 이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반영되고 다시 유아의 공격성으로 이어진다[2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무력감, 적대감,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일관성 없는 태도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므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부갈등은 우울과 관련성이 있어, 갈등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의 우울 유병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23]. 부부관계의 갈등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부부관계의 문제가 우울 수준을 높인다[24]. 어머니가 경험하는 부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결혼만족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낮추며, 부부 간의 갈등이 높고 지속될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에서 부모의 심리적 문제가 매개하는 역할에 관심을 가져 왔지만[26], 부모의 심리적 문제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27].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우울을 유발시키고[28], 우울은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하는데 있어 불안정한 정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를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내 유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16]. 또한 부부갈등은 어머니 우울의 선행요인이며, 우울은 부부갈등과 자녀 발달 간의 관련성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부부갈등에 대한 최근 20년간의 국내연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특성

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거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30]. 이에 비해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발달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갖는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므로,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갖는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유아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별로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 개입하는데 필요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둘째,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이 갖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5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각 가정으로 보낸 후 동의서가 회수된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가 실시되었다. 총 242명의 유아를 통해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나 가정 내 사정이나 결석, 이사로 인해 연구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와 어머니를 제외하고 설문지 불성실 작성을 제외한 총 177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 177명의 성별은 남아가 86명(48.6%), 여아가 91명(51.4%)이었으며, 4세가 81명(45.8%), 5세가 96명(54.2%)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의 연령을 보면, 25세 이하는 2명(1.1%), 26세에서 30세가 18명(10.2%), 31세에서 35세가 67명(37.9%), 35세에서 40세가 83명(45.9%), 41세 이상 7명(3.9%)이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세로 나타났다.

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11명(6.2%), 전문대학 졸업 67명(37.9%), 대학교 졸업은 82명(46.3%), 대학원 이상은 17명(9.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직/기술직 80명(45.2%), 전문직이 15명(8.5%), 관리직이 2명(1.1%), 판매직/서비스직 7명(3.9%), 기타가 11명(6.2%), 전업주부가 62명(35%)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유아의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연령에 기초하여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 지도를 벗어나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과 유안진[31]의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잉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의 3개 요인을 포함하며 각 요인은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는 과잉행동 .84, 불안행동 .69, 공격행동 .87이었다.

2.2.2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불일치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적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나 말다툼과 같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언어 공격, 간접적인 신체공격 및 위협 등으로 정의한다.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서찬란이 수정한 것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32]. 이는 부부 갈등상황에서의 행동과 갈등상황 이후의 행동에 대한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는 .75로 나타났다.

2.2.3 어머니 우울

우울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공허함, 외로움을 느끼며, 기쁨이나 흥미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어머니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33]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를 수정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집단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는

10점에서 5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각 변인의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s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34]의 단계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부부갈등, 어머니의 우울 및 유아의 문제 행동 간 상관관계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r=.615, p<.01$)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r=.532, p<.01$)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전체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것으로 나타났다($r=.740, p<.01$).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우울 수준이 높은 경우 유아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하위영역 중 과잉행동($r=.311, p<.01$), 불안행동($r=.353, p<.01$), 공격행동($r=.436, p<.01$)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하위영역 중 과잉행동($r=.518, p<.01$), 불안행동($r=.475, p<.01$), 공격행동($r=.559, p<.01$)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유아의 문제행동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marital conflict, depression, problem behaviors (N=177)

	1. Marital conflict	2. Depression	3. Hyperactivity	4. Anxious behaviors	5. Aggressive behaviors	6. Problem behaviors
1	1					
2	.615**	1				
3	.311**	.518**	1			
4	.353**	.475**	.108	1		
5	.436**	.559**	.554**	.190*	1	
6	.532**	.740**	.709**	.627**	.742**	1
Mean	2.457	1.534	1.703	1.431	1.211	1.409
SD	.349	.606	.549	.407	.372	.270

**p<.01, *p<.05

3.2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3.2.1 부부갈등과 유아의 과잉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과잉행동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단계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 분석에서 Durbin-Watson 값은 1.9이며 VIF 공차값은 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615, p<.001$), 2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유아의 과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11, p<.001$). 3단계에서는 매개요인인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과잉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525, p<.001$), 독립

변인인 부부갈등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12, p>.10$).

유의성 수준을 나타내는 t값과 p값을 보면 1단계와 2단계의 독립변인, 그리고 3단계의 매개요인의 영향 모두 유의하며, 3단계에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p=.888$) 우울은 부부갈등과 유아의 과잉행동 간 관련성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R²값은 3단계에서 26.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3.2.2 부부갈등과 유아의 불안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불안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 결과에서 Durbin-Watson 값은 1.5이며 VIF 공차값은 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hyperactivity (N=177)

Steps	Regression	β	t	p	R ²
1	Marital conflict → Depression	.615	10.312	.000	.378
2	Marital conflict → Hyperactivity	.311	4.328	.000	.097
3	Depression → Hyperactivity	.525	6.380	.000	.268
	Marital conflict → Hyperactivity	-.012	-.141	.888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nxious behaviors (N=177)

Steps	Regression	β	t	p	R ²
1	Marital conflict → Depression	.615	10.312	.000	.378
2	Marital conflict → Anxious behaviors	.353	4.996	.000	.125
3	Depression → Anxious behaviors	.414	4.917	.000	.232
	Marital conflict → Anxious behaviors	.099	1.170	.243	

1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615, p<.001$), 2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유아의 불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beta=.353,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부갈등과 매개요인인 어머니의 우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불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414, p<.001$), 부부갈등은 3단계에서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p=.243$) 어머니의 우울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R^2 값은 1단계에서 37.8%, 2단계에서 12.5%, 3단계에서 23.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이 유아의 불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우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부부갈등과 유아의 공격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공격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결과에서 Durbin-Watson 값은 1.7이며 VIF 공차값은 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615, p<.001$), 2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유아의 공격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beta=.436,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부갈등과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우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공격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beta=.468, p<.001$), 부부갈등은 3단계에서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유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p=.061$) 어머니의 우울이 완전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부부갈등이 유아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2 값은 1단계에서 37.8%, 2단계에서 19%, 3단계에서 32.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이

유아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우울이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에 따라 살펴 본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유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우울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들[27,28,35]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부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어머니의 정서 상태가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관계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이는 어머니의 우울, 불안, 좌절과 같은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서로 관련된다는 선행연구결과와[5,6], 어머니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을 밝힌 연구결과와[20] 일치한다.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과잉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이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과잉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국내 연구결과와[36] 일치한다.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은 유아의 불안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가족 내 정서적 분위기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ggressive behaviors (N=177)

Steps	Regression	β	t	p	R^2
1	Marital conflict → Depression	.615	10.312	.000	.378
2	Marital conflict → Aggressive behaviors	.436	6.411	.000	.190
3	Depression → Aggressive behaviors	.468	5.930	.000	.326
	Marital conflict → Aggressive behaviors	.148	1.882	.061	

를 결정하는데 부부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부관계에서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는 불안과 공포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불안행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은 유아의 공격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갈등에 많이 노출된 유아가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공격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를[5]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유아의 문제행동을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과 유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공격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부부갈등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에서 어머니 우울이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고[28],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27] 뒷받침하는 것이다. 더불어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4]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이 갖는 매개역할을 보고한 연구결과들과[26,29] 일관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이 심한 경우 어머니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또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 유아의 문제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우울을 지속적으로 표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증가시킨다[16]. 즉, 부부갈등으로 인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유아에게 영향을 미쳐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울한 어머니는 불안정한 심리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녀에게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유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울한 어머니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자녀에게 반응하며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

게 더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15]. 우울한 어머니는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를 강압적으로 대함으로써 자녀의 저항과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어머니는 그런 자녀를 더 통제하기 위해 더욱 더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어머니와 자녀 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과정이 지속되며, 결국 유아의 문제행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를 대하는 태도에 반영되어 유아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종합하여 보면,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완전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을 발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부갈등은 직접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부간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증가하며, 이는 유아의 과잉행동, 공격성이나 불안행동 같은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많이 겪으며 이러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어머니는 우울과 불안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은 자녀에게 반영되어 자녀 또한 불안감을 나타내며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통해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한다는 것이다[27]. 이는 주 양육자로서 유아를 양육하면서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이 유아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부관계와 부모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상의 문제가 자녀의 발달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중요하다.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결혼 초기의 부부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고, 부모의 심리 및 정서적인 건강을 다루는 부모교육과 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을 특정 지역의 유아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유아와 어머니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양한 배

경과 지역을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갈등, 어머니의 우울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부모의 우울을 포함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우울한 부모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유아의 발달 및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유아의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 그리고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N. Choi & N. N. Shin. (2015).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day-care experiences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1(2), 283-310.
- [2] K. A. Fanti & C. C. Henrich. (2010). Trajectories of pure and co-occurr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age 2 to age 12: Finding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6, 1159-1175.
- [3] J. Y. Kim, H. S. Doh & M. J. Kim. (2008). Problem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and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133-150.
- [4] H. M. Yoon & M. J. Choi. (2006).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 on problem behaviors of young childre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child neglect.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7, 21-44.
- [5] Y. A. Jang & Y. J. Lee. (2012). Effects of maternal behaviors, parenting stresses, and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aggression. *Family and Family Therapy*, 20(3), 357-373.
- [6] S. M. Kim & Y. H. Kim. (2015). Effects of mother's marital relationship, depression, somatic symptoms, and sleep quality on children's sleep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9(3), 219-243.
- [7] J. H. Noh & H. J. Song. (2008). Influence of disagreement i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Psychotherapy*, 7(2), 75-89.
- [8] H. N. Song.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daily stresses, degre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7(3), 1-15.
- [9] H. M. Lee. (2015). The effect of maternal conflict, mother's self-efficacy and social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ognitive Development Intervention*, 6(2), 119-136.
- [10] J. H. Block, J. Block, & P. F. Gjerde. (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A prospective study. *Child Development*, 57, 827-840.
- [11] M. J. Kim & H. S. Doh. (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149-166.
- [12] E. M. Cummings & P. T. Davies. (201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An emotional perspective*. New York, N. Y: Guilford Press.
- [13] J. S. Lee. (2010).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behavior and preschooler's emotionally unstable behavior: Relationship to husband-wife relationship.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4(3), 37-56.
- [14] B. K. Barber. (1993).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s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64-974.
- [15] E. M. Cummings & P. T. Davies.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16] G. Downey & J. C. Coyne.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17] W. R. Beardslee, J. Bemporad, M. B. Keller, & G. L. Klerman. (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major affective disorder: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25 - 832.
- [18] K. Lyons-Ruth, M. A. Easterbrooks & C. D. Cibelli. (1997). Infant attachment strategies, infant mental lag,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t age 7.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681-692.
- [19] C. McCullough, & A. Shaffer. (2014). Maternal

-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externalizing problems: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ly maltreating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 389-398.
- [20] J. H. Baik. (2009).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Comparisons between mother's perception and child's percep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21] G. H. Yoo & Y. E. Yoon. (2002).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29, 149-171.
- [22] S. N. Choi & Y. K. Moon. (2016). The influences of child daily stress and parental discipline style,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the gende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7, 125-156.
- [23] M. A. Whisman. (2000).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In S. R. H. Beach(Ed.), *Marital and family processes in depression : A scientific foundation for clinical practice* (pp.3-2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24] F. D. Fincham, S. R. H. Beach, G. T. Harold & L. N. Osborne. (1997).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s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Science*, 8, 351-357.
- [25] G. H. Hong & Y. O. Seo. (2012).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anger: Moderating effects of gratitude. *Humanities*, 29, 157-158.
- [26] A. M. Connell & S. H. Goodman. (2002).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in fathers versus mother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 746-773.
- [27] H. S. Doh, M. J. Kim, M. K. Choi, S. W. Kim, & S. J. Cho. (2012).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145-164.
- [28] E. M. Yeon, H. O. Yoon, & H. S. Choi. (2015).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the emotional temperament of infant, father's parenting engage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35(3), 1-29.
- [29] L. M. Papp, E. M. Cummings & A. C. Schermerhorn. (2004). Pathways among marital distress, parental symptomatology,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368-384.
- [30] J. H. Lim & J. J. Yoon. (2010). A review of interparental conflict in relation to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in Korean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7(1), 263-284.
- [31] M. H. Han & A. J. Ryu. (1995). The validat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6(2), 5-21.
- [32] C. R. Seo. (2006). The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8(2), 151-162.
- [33] L. S.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34]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35] S. W. Seo & D. K. Lee. (2013). The effects of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couple conflict and infants' emotional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5), 279-298.
- [36] Y. H. Kim & R. S. Jang. (2004). Parents' perfectionism,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maladjustment. *The Journal of Play Therapy*, 8(1), 117-139.

김 규 랑(Kyu-Rang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과천청사어린이집 교사
- 관심분야 : 유아교육, 부모역할, 양육행동

· E-Mail : kkrx_x@naver.com

이 형 실(Hyong-Sil Lee)

[정회원]



- 199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부모역할, 가족관계, 심리적 적응
- E-Mail : hslee97@hotmail.com